

# 도농복합시 거주민의 거주의향 결정요인과 그 시사점 : 지역정체성과 거주의향 간의 내생성을 중심으로

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Determinants of Residence Inten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Urban-Rural Complex Area : Focusing on the Endogeneity Between Regional Identity and Residence Intention

Hyang-Mi Yi  
Rural Research Institut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요약** 도농복합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병존하는 독특한 공간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도농복합시의 농촌과소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민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춘천시 사회조사'를 이용해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과소화 대응 방안으로 기존 거주민의 지속적인 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정체성은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정체성과 거주의향과의 내생적 관계를 고려하여 연립 이변량 순위 프로빗 모델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도농복합시에 대해 지역정체성이 강할수록 지역내 거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의 연령과 거주기간이 길수록, 일·여가생활·거주에 대해 만족할수록 지역정체성이 높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할수록, 종사하는 일에 만족할수록 거주의향이 높다. 따라서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거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수요를 파악 후 적재·적시 적절한 생활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도농복합시의 경우 의료서비스는 지역정체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거주의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urban-rural complex area in Korea has a distinctive spatial structure where the urban area and rural area coexist. Therefore, in order to cope with the over-depopulation in the rural region of the urban-rural complex area, it is necessary to explore various policies that can prevent the existing residents from leaving, and in fact support them to remain where they currently reside. In this context, this current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existing residents' continuous intention to remain by employing the '2017 Chuncheon City Social Survey' as a countermeasure for the over-depopulation of the rural region in the urban-rural complex area. Especially, since a regional identity is determined endogenously, this study used a simultaneous bivariate ordered probit model with giving consideration to the endogenous relationship between a regional identity and a regional residents' intentions. As a result, it was found on analysis that the regional residential intention was higher as the regional identity was stronger. Furthermore, the regional identity was stronger as a householders' age and residence period were longer, and also as the residents were satisfied with their work-leisure and life-residence balance. It was also found that the residents' intention was higher as the residents' satisfaction with the local medical service and their work was increased. Thus, supporting policy is needed that can provide appropriate quality-of-life services in a timely manner, but only after identifying the demand for these services by the rural residents in the urban-rural complex area.

**Keywords** : Community Identity, Over-Depopulation in Rural, Residence Intention, Simultaneous Bivariate Ordered Probit Model, Social Survey, Urban and Rural Complex Area

본 논문은 2019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자체연구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 N2019-0025).

\*Corresponding Author : Hyang-Mi Yi(Rural Research Institut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email: yihyangmi@ekr.or.kr

Received May 13, 2019

Accepted August 2, 2019

Revised June 3, 2019

Published August 31, 2019

## 1. 서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9.6%(25,519천 명, 2017년 기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면(面) 소재지 인구 구성비는 9.4%에 불과하지만, 노령화 지수는 312.9%로 동(洞) 지역 92.2%보다 높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7,115천 명(2017년 기준) 중에서 18%는 면 소재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과소화 및 고령화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도농복합시는 방대한 면적과 하나의 지역 내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병존하는 독특한 공간구조를 갖고 있다. 즉 도농복합시는 도시와 농촌이 합쳐지면서 도시면적은 크게 확대되었지만, 동시에 농촌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도농복합시는 경제활동, 생활환경, 소득수준 등이 다양하고, 서비스 공급측면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교통서비스, 각종 편의시설의 공급이 용이한 반면,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은 이와 같은 서비스의 공급이 쉽지 않다[1]. 따라서 도농복합시는 전형적인 농촌지역과는 다른 인구 구성과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정 구역상 농촌으로 구분되는 '면' 소재지 거주민들의 거주방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면 소재지 거주민들의 지역 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화의 진전과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간 고유한 경계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 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체성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만의 특성으로, 지역주민들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가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2, 3], 이러한 지역정체성은 지역사회의 특징과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실증 분석되었다. 지역주민 조사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살펴본 몇몇 연구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기영화[2]는 일원분산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문화자본(지역문화재, 지역문화자산, 여가생활, 문화프로그램, 지역축제, 고유전통)이 지역주민의 거주방향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의 문화자본이 거주방향과 지역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SOC 등 하드웨어 사업 중심에서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영원[3]은 전주와 무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정

체성의 차이, 지역 언론의 이용행태를 살펴보고, 지역 정체성에 따른 지역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도시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나 지역민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거주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반면, 군 단위의 소규모 지역에서는 지역이라는 장소에 대한 감정과 애착 정도에 따라 지역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진·김성희[4]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해 분당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내 거주방향을 살펴보았다. 임준홍·홍성효[5]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예상되는 홍성군과 예산군 원도심 주민들을 대상으로 로짓회귀분석을 통해 거주방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소비행태를 각각 분석하였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지역정체성의 주요 요인으로 지역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지적하였듯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라 지역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지역정체성과 해당 지역의 거주방향과의 연관성이다. 즉 지역정체성 강도는 지속적인 거주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직까지 도농복합시의 거주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대부분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 연구들이다. 또한 최근 인구감소가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거주민의 거주방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한 연구도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과소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원주민들의 거주방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도농복합시 거주민의 지역정체성 강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농촌지역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의향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민의 지역정체성이 거주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이 요인들의 다양한 영향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 연립 이변량 순위 프로빗 모형(simultaneous bivariate 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체성과 지역거주방향을 모두 순위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두 모형이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춘천시를 연구표집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강원도의 경우 전국에서 인구 구성비가 가장 낮고, 춘천시는 1995년에 춘천군과 춘천시를 관할로 하는 도농복합형태 지역이 되었다. 춘천시는

15개 동, 1개 읍, 9개 면(동면,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시로 춘천시를 연구표집 지역으로 선정하여, 춘천시 지역주민간 지역정체성의 차이와 이 정체성이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 2. 이용 자료와 연구 방법

### 2.1 이용한 자료와 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시의 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춘천시의 「2017년 사회조사(통계법 제17조 및 18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 101018호)」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조사되고 있다. 현재 2018년까지 지역별 사회조사가 되었지만, 공공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원자료는 2017년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춘천시의 2017년 사회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정체성과 이 지역정체성이 농촌지역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변수는 기존 지역정체성 또는 거주의향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과 같이 설정하였다. 분석대상은 가구주로 한정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가구는 총 1,000명이다.

첫째, 「2017년 춘천시 사회조사」에서 ‘지역 정체성’은 “현재 살고계신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의 질문으로 측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역정체성은 지역에 대한 소속감 정도(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약간 있다, ④ 매우 있다)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그리고 「2017년 춘천시 사회조사」에서 ‘거주의향’은 “귀하는 향후 10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까?”의 질문으로 측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역내 계속 거주의향 정도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어느정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둘째, 이러한 지역정체성과 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이영민[6]은 지역 정체성을 각 지역별로 구별 지을 수 있는 성격으로 정의한 후, 지역 정체성을 단순히 공간적 차별 또는 경관적 독특성만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태원·김원동[7]은 지역정체성의 하위 차원들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은 생활만족도, 상대적 박탈감 같은 지역적 변수들이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분석하였다. 따라서 지역정체성은 거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시에 대한 정체성과 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개인내적 및 외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행위예측의 적합한 분석틀로 활용되고 있는 Anderson·Newman[8]의 행동모델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nderson·Newman[8]의 행동모델에서 제안하고 있는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인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할 의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구주의 특성으로,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시의 지역정체성과 계속적인 거주의향에 미치는 선행요인으로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정규 교육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실증분석에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참조집단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가구주가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과 능력에 관한 가능요인(enabling factors)은 경제사회학적 요인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가 농촌에 거주 의향이 있더라도 가능요인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요인으로는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 혼인상태, 가구원수, 직업, 직업에 대한 만족도, 가구 부채 유무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교육환경은 농촌지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은 도시지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이러한 도농간 교육인프라격차는 결국 중학교 교육의 지역차로 이어지고 있고, 고등학교는 학생이 거주하는 시군구와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가 다른 경우가 많아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부모의 학력, 직업 등과 그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교육결과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3세 미만의 자녀수가 농촌지역 거주의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의 관점에 따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한 후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욕구요인은 농촌생활에서의 만족도와 지역변수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주거에 대한 만족도, 대중교통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용 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지역변수로는 총 거주기간, 거주지역으로 구성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읍면을 농촌지역으로,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은 행정 구역상 읍급 이상을 도시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조사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기준에 따라 도농복합시의 읍 지역 이상을 도시로 구분하였다.

## 2.2 분석 방법

지역정체성 강도는 지역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체성 강도와 지역거주의향의 내생성을 고려해 연립 이변량 순위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였다[8]. 만약 도농복합시(본 연구에서는 춘천시)  $i$  주민의 지역 정체성과 거주의향을 각각  $R_{1i}^*$ ,  $R_{2i}^*$ 로 나타내면, 두 변수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s)이고, 이것은 식 (1)과 같이 결합하여 나타낼 수 있다.

$$\text{식 (1)} \quad R_{1i}^* = x'_{1i}\beta_1 + \nu_{1i}, \quad R_{2i}^* = x'_{2i}\beta_2 + \alpha R_{1i}^* + \nu_{2i}$$

여기서  $\beta_1$ ,  $\beta_2$ 는 추정계수 벡터(vector)이고,  $\alpha$ 는 스칼라(scalar),  $\nu_1$ ,  $\nu_2$ 는 오차항이다. 그리고  $x'_{1i}$ ,  $x'_{2i}$ 는 각각

지역정체성의 강도와 거주의향을 나타내는 잠재변수이다. 한편 지역정체성 강도의 크기가 1부터  $J$ 까지, 향후 거주의향 정도가 1부터  $K$ 까지의 값을 갖는 경우, 본 연구에서는 식 (2)와 같이  $R_{1i}$ ,  $R_{2i}$ 의 대응변수가 분석에 사용된다. 그리고  $R_{1i} = j$ ,  $R_{2i} = k$ 일 확률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2)

$$R_{1i} = \begin{cases} 1 & \text{if } R_{1i}^* \leq d_{11} \\ \vdots & \\ J & \text{if } d_{1,J-1} < R_{1i}^* \end{cases}, \quad R_{2i} = \begin{cases} 1 & \text{if } R_{2i}^* \leq d_{21} \\ \vdots & \\ K & \text{if } d_{2,K-1} < R_{2i}^* \end{cases}$$

여기서

$$d_{11} < d_{12} < \dots < d_{1,J-1} \quad (1 \leq J \leq 4),$$

$$d_{21} < d_{22} < \dots < d_{2,K-1} \quad (1 \leq K \leq 5)$$

식 (3)

$$\Pr(R_{1i} = j, R_{2i} = k) = \Pr(d_{1,j-1} < R_{1i}^* \leq d_{1j}, d_{2,k-1} < R_{2i}^* \leq d_{2k})$$

$$= \Pr(R_{1i}^* \leq d_{1j}, R_{2i}^* \leq d_{2k})$$

$$- \Pr(R_{1i}^* \leq d_{1,j-1}, R_{2i}^* \leq d_{2k})$$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uncheon Residents

Variables	Unit	Mean	St. dev.
Community identity	Strongly disagree = 1, Disagree = 2, Agree = 3, Strongly disagree = 4	2.89	0.79
Residence intention	Not at all = 1, Slightly = 2, Moderately = 3, Very = 4, Extremely = 5	4.12	1.12
Age	Years	51.72	18.44
Number of household	Number of families living together	2.13	1.16
Number of children	Number of living together under the age of 13	1.52	0.63
Gender	Man = 1, otherwise = 0	0.70	0.45
Marital Status	Married = 1, Otherwise = 0	0.57	0.49
Education level	Above university = 1, Otherwise = 0	0.46	0.49
Job	Agriculture engaged = 1, Otherwise = 0	0.12	0.32
Residence period	years	36.98	23.81
Debt	In debt = 1, otherwise = 0	0.39	0.49
Satisfaction in medical service <sup>a)</sup>	Likert's 5-point scale	3.82	0.82
Satisfaction in work <sup>b)</sup>	Likert's 5-point scale	3.61	0.94
Satisfaction in leisure <sup>c)</sup>	Likert's 5-point scale	2.93	0.99
Satisfaction in consumer life <sup>d)</sup>	Likert's 5-point scale	2.89	0.95
Satisfaction in income <sup>e)</sup>	Likert's 5-point scale	2.77	0.96
Satisfaction in residence <sup>f)</sup>	Likert's 5-point scale	3.71	0.94
City living	Residence in town = 1, Otherwise = 0	0.70	0.45
City bus	Used = 1, Otherwise = 0	0.77	0.42
Intercity bus	Used = 1, Otherwise = 0	0.80	0.39

note : a), b), c), d), e), f) is a Likert's original 5-point scale type of rating scale used to measure satisfaction.  
data : 'Social research in 2017' raw data in Chuncheon

$$\begin{aligned}
 & -\Pr(R_{1i}^* \leq d_{1j}, R_{2i}^* \leq d_{2k-1}) \\
 & +\Pr(R_{1i}^* \leq d_{1j-1}, R_{2i}^* \leq d_{2k-1})
 \end{aligned}$$

한편 오차항  $\nu_1, \nu_2$ 가 상관계수  $\rho$ 를 가지는 이변량 표 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식 (3)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i$ 주민의 로그우도함수는 식 (5)와 같다. 전체 주민  $N$ 에 대한 로그우도함수는 식 (6)과 같고, 이 전체 로그우도함수를 극대화하는 추정치를 도출한다.

식 (4)

$$\begin{aligned}
 \Pr(R_{1i} = j, R_{2i} = k) &= \Phi_2(d_{1j} - x'_{1i}\beta_1, d_{2k} - \alpha x'_{1i}\beta_1 - x'_{2i}\beta_2) \zeta, \bar{\rho}) \\
 & - \Phi_2(d_{1j-1} - x'_{1i}\beta_1, d_{2k} - \alpha x'_{1i}\beta_1 - x'_{2i}\beta_2) \zeta, \bar{\rho}) \\
 & - \Phi_2(d_{1j-1} - x'_{1i}\beta_1, d_{2k-1} - \alpha x'_{1i}\beta_1 - x'_{2i}\beta_2) \zeta, \bar{\rho}) \\
 & + \Phi_2(d_{1j-1} - x'_{1i}\beta_1, d_{2k-1} - \alpha x'_{1i}\beta_1 - x'_{2i}\beta_2) \zeta, \bar{\rho})
 \end{aligned}$$

식 (5)

$$\ln L_i = \sum_{j=1}^J \sum_{k=1}^K I(R_{1i} = j, R_{2i} = k) \ln \Pr(R_{1i} = j, R_{2i} = k)$$

식 (6)

$$\ln L = \sum_{i=1}^N \sum_{j=1}^J \sum_{k=1}^K I(R_{1i} = j, R_{2i} = k) \ln \Pr(R_{1i} = j, R_{2i} = k)$$

### 3. 연구 결과

관측치(1,000가구)가 많고 특정구간에 데이터 값이 집중될 수 있어 분포를 보다 쉽게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바라기 산포도(sunflower plot)를 통해 지역정체성과 거주의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정체성이 높을수록 거주의향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춘천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지역정체성과 거주의향간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체성과 거주의향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고,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지역정체성 강도를 포함할 수 있는 연립 이변량 순위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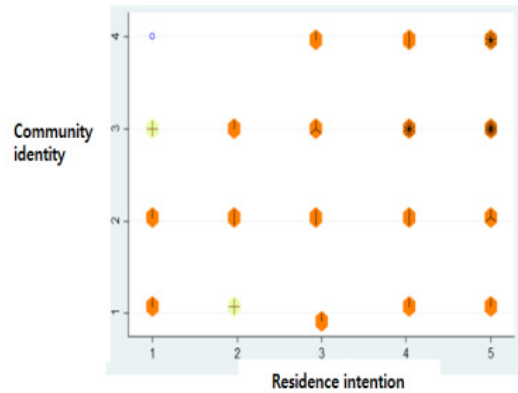


Fig. 1. Sunflower Scattering of Community Identity and Residence Intention

Table 2는 내생성을 고려해 지역정체성과 거주의향을 동시에 추정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지역정체성과 거주의향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이것은 우도비검정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되어 지역정체성과 거주의향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농복합시의 거주의향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서 지역정체성을 단순히 외생 설명변수로 설정할 경우 추정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간접적으로 농촌지역 거주 의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역정체성은 외생변수보다는 그 자체가 개인의 특성이나 주변 여건에 의해 형성되는 내생변수인데, 이를 무시하고 지역정체성을 외생변수로 처리할 경우 분석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도농복합시의 지역정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강원도에 오래 거주할수록 도농복합시의 지역정체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에 대해 만족할수록,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할수록, 거주에 만족할수록 지역정체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최종 분석결과인 Table 2의 하단에 거주의향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정체성이 강할수록 향후에도 지역내 거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할수록, 일에 대해 만족할수록 거주의향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지역정체성과 거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고, 지역정체성이 강할수록 향후 계속 거주할 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구주의 특징 가운데 연령은 지역정체성에 영향

을 미치지지만, 거주의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반면 지역내 거주기간은 지역정체성과 지역거주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정부가 농산업을 신규입력 유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기반을 먼저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다른 변인들이 일정할 때 지역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정체성과 거주의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자리에 만족할수록 지역정체성도 높고, 지역거

주의향도 높기 때문에, 도농복합시 거주민들의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농산업을 종사할수록 지역 거주의향이 높기 때문에, 도농복합시의 농산업을 연계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이것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Analysis of Residential Intentio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Classification	Estimate coefficient	Standard error
Determinants of Community Identity	Age	0.017**	0.007
	Number of household	0.057	0.070
	Gender	0.205	0.250
	Married	-0.229	0.295
	Gender × Married	0.032	0.355
	Education level	0.056	0.156
	Job	-0.232	0.442
	Residence period	0.152*	0.076
	Debt	0.114	0.143
	Satisfaction in medical service	0.133	0.084
	Satisfaction in work	0.209***	0.079
	Satisfaction in leisure	0.014***	0.004
	Satisfaction in consumer life	-0.043	0.091
	Satisfaction in income	-0.033	0.093
	Satisfaction in residence	0.168**	0.078
Determinants of residential intention	City living	0.080	0.149
	Community Identity	0.452**	0.207
	Age	0.037	0.032
	Number of children	0.378	0.242
	Gender	6.336	314.633
	Married	0.943	1.279
	Gender × Married	-5.701	314.633
	Education level	0.063	0.376
	Job	0.632	1.139
	Residence period	0.510***	0.195
	Debt	0.187	0.401
	Satisfaction in medical service	0.397**	0.200
	Satisfaction in work	0.608***	0.200
	Satisfaction in leisure	0.001	0.011
	Satisfaction in consumer life	-0.277	0.197
	Satisfaction in income	-0.210	0.218
	Satisfaction in residence	-0.229	0.184
	City living	-0.288	0.323
City bus	-0.039	0.108	
Intercity bus	0.023	0.111	
$\rho$		0.467***	0.070
Boundary-value	cut11	4.761***	1.873
	cut12	6.454***	1.881
	cut13	6.906***	1.885
	cut14	8.234***	1.928
	cut21	1.756***	0.630
	cut22	2.915***	0.633
	cut23	4.637***	0.657
log likelihood			-88.279***

\*\*\* p<0.01, \*\* p<0.05, \* p<0.1

#### 4. 요약 및 결론

향후 도농복합시 농촌지역의 과소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민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과소화 대응 방안으로 기존 거주민의 계속적인 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거주의향은 지역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정체성은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정체성과 지역거주의향과의 내생적 관계를 고려하여 연립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농촌지역 과소화 대응 정책은 주로 귀농귀촌인의 유입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지자체를 지탱하는 인구확보가 자생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동인 귀농귀촌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귀농귀촌을 통한 신규 인력의 유입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 농촌지역 주민들의 거주의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의 과소화 문제는 지역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 거주의향은 지역정체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주민의 거주의향을 높이는 것보다는 지역정체성을 먼저 강화한 후 거주의향 제고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도농복합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 주민의 유출은 결국 도농복합시의 규모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도농복합시에서 행정구역상 도시로 구분되는 읍·동 거주민은 면 소재지 거주민보다 지역정체성은 높고, 향후 거주의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도농복합시의 경우 농촌지역인 면 소재지 지역주민의 거주의향이 높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서비스 수요를 파악 후 적재·적시 적절한 생활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면 단위 농촌지역은 읍 소재지에 비해 교통기반 약화, 소매점 감소, 노후주택 및 빈집 증가 등의 문제가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면 소재지 지역주

민의 경우 읍 소재지 거주민에 비해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향후 지역거주 의향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면 소재지는 인구과소화로 인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부분의 투자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과 연계하여 면 소재지 지역개발과 연계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면 소재지에 기술이나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복지,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농복합시의 경우 의료서비스는 지역정체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거주의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서비스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건강에 적합하도록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산업 규모는 GDP 대비 5.1%(2015년 80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의료서비스산업은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 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이것은 농촌지역의 스마트 헬스 구축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의료서비스분야 적용 확산에 따라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일선 의료기관의 준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보건의로 제공자, 정부, 소비자 등 보건의로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비중은 1980년 3.9%에서 2017년에는 13.8%로 증가하였다. 반면 농촌지역은 같은 기간동안 6%에서 42.5%로 급증하였다. 따라서 향후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농촌지역 인구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농촌지역 유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거주민들의 지역내 거주의향을 제고하여 이들의 유출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도농복합시 거주민들의 지역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체성과 지역거주의향간의 내생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관련 연구들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의 지역표집은 춘천시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와 일반화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변인들이 많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지역표집 확대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References

- [1] S. D. Lim, "Tasks and Direction of Urban Development in Integrated City," *Urban Problem*, vol. 30, no. 316, pp. 33-49, March, 1995.
- [2] Y. W. Kee, "The Effect of Community Cultural Capital on the Residents' Life Satisfaction and Local Identity,"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vol. 31, no. 4, pp. 85-110, Dec. 2017.
- [3] Y. W. Lee, "A Study on the Community Identity and Community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vol. 49, no. 2, pp. 251-277, Dec. 2010.
- [4] Y. J. Kim, S. H. Kim,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New Town Residents' Living Intention - Focused on the Residents of Bundang New Tow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5, pp. 405-411, May,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5.405>
- [5] J. H. Im, S. H. Hong, "Empirical Analyses on Intention to Liv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of Urban Residents in Neighboring Counties of Naepo New Tow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7, no. 2, pp. 678-686, 201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2.678>
- [6] Y. M. Lee, "Regional Identity and Community Paper : A Search for Subject and Method of Geographical Research,"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ol. 5, no. 2, pp. 1-14, 1999.
- [7] T. W. Lee, W. D. Kim, "An Empirical Test on Multi-Dimensionalities of Regional Identity and Its Determinants: In case of Gangwon Provinc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55, no. 2, pp. 3-37, 2016.  
DOI: <https://doi.org/10.22418/JSS.2016.12.55.2.3>
- [8] R. Andersen, J. Newman, "Societal and Individual Determinant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Health and Society*, vol. 51, pp. 95-124, 1973.  
DOI: <https://doi.org/10.1111/j.1468-0009.2005.00428.x>
- [9] G. M. Choo, "A Research on the Regional Differences of Education: A Case Study on the Middle School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 Vvol. 1, no. 1, pp. 33-53, 2012.

이 향 미(Hyang-Mi Yi)

[중신회원]



- 2011년 2월 : 강원대학교 대학원 농업자원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2013년 8월 : 강원대학교 대학원 농업자원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2014년 3월 ~ 2016년 5월 : 강원대학교 연구교수

• 2016년 5월 ~ 현재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임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농업경영, 농가조직, 청년농업인, 농지